

농촌보건사업의 선구자

~ 일선에서의 수기 ~

<강원도정선군북면모자보건요원> 이 영 자

정부에서는 무의촌 해소와 농어촌 모자보건사업에 주력할 것을 늘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해마다 졸업하는 의사나 간호원이 직접 농어촌보건사업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다.

의사의 일은 전혀 농는다 치더라도 우리 간호원들만도 농촌으로 들어가 일하려는 생각보다는 학교를 나오자마자 시설이 잘된 종합병원에서 1~2년간 경력을 쌓은 후, 미국이나 캐나다로 떠날 풍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정부시책이 농어촌 보건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없고 교통이 불편하며 생활조건이나 근무조건등 모든 것이 미비한 농어촌에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농어촌보건사업에 뜻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기꺼히 나서는 사람과 이들을 위해 뒷받침해 주는 정부가 보조를 맞추기 전에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더기 이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특별한 뜻을 품고 강원도 정선군북면에서 농촌 모자보건의 선구자로서 일하고 있는 가특한 회원이 있어 지상을 통해 그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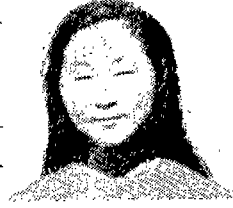
“아무래도 연애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달듯할 목적이 있어 여기에 온 섹셀거야. 아니고서야 왜 서울에서도 이름난 이화학고를 나왔다는 섹씨가 하필이면 이런 촌구석을 찾아든담...”

이 말은 강원도에서도 제일 산골짜기인 정선군 북면에서 모자보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를 두고 하는 이 부락민들의 수근덕거리는 소리다.

하기는 그렇기도 할 것이 평생 서울구경 한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고, 서울이라면 별천지나 되는듯이 늘 동경해온 사람들이라 나처럼 일부러 촌구석을 찾아든 철부지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칠 수 밖에.

어떤 때는 처녀처럼 머리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머리를 올려

부인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부락민들과 조급이라도 더 가까이 지려고 애쓰는 내가 그들에게 알쏭달쏭한 존재로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 모양이다.



<이명자>

내가 이 부락에서 하는 일이란 주로 분만개조,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산전산후관리 등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 부락민들과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우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기에도 무척 애를 먹었다.

아이는 그저 짙이나 흰자리를 깔고 분만하면 그만이고, 아들이면 태를 낫으로 찢르고 딸이면 태를 가위로 찢른다는 것만을 철칙으로 믿고 살아온 이들에게 내 말이 사치하고 건방진 잔소리로 밖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병이 나면 서둘러 약을 쓰고 심하면 병원도 찾지만 임부나 영유아는 그저 아픈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아프다가 죽으면 그건 팔자소견으로 돌리고 손을 생각도 안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처럼 이 곳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어 있는 임부나 영유아를 위해 나는 내 성의껏 보살피고 주고 싶은 것이다.

자전거가 있다 해도 타고 다닐 수 없고, 비가 오면 배를 타야만 하는 험한 길을 매일 30~40리씩 걸어 다니며 이 러려진 임부나 영유아를 찾아 하루에 약 10명씩 등록시키고 분만시에는 꼭 연락하도록 일러 주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실컷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도 등록을 시키려면 이름을 대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왜 나는 등록시켜 주지 않느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땐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목적이 그저 공짜로 약을 얻어 먹자는데에만 있다 하더라도, 내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해 찾아오는데서 보람을 느끼고 피곤과 고달픔을 잊는가 보다.

기구라고는 가장 필요한 체중기, 신장기, 혈압기도 없는 것을 보건소에서 혈압기 하나를 빌려 큰 약가방에 분만포와 상비약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이래서 그래도 한달에 약 10건의 분만개조를 맡게 된다.

강냉이와 감자가 많은 이곳은 쌀밥을 구경하기 힘들고 나도 절식을 싸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다니다 보면 절식을 굶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집에서는 강냉이밥일망정 푸짐하게 대접해 주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늦어 부락에서 자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의례히 조밥이나 죽수로 저녁

을 먹게 된다.

이렇게 내가 이 부락민들과 아무 허물없이 일하고 있으니까 서울같은 도회지에선 맛볼 수 없는 구수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내가 1968년도에 이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이 곳을 찾아온다는 내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이다.

나는 고등학교때부터 늘 계몽대원으로 강원도에 자주 드나들면서 성의를 가지고 협조해 주는 강원도도지사화도 친숙해졌고, 또 도지사께서도 내 뜻을 알고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내딛인 것이다.

더구나 간호학과를 나왔으니 실제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농촌 사람들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도 목적이었다.

물론 이론과 실재는 다른 법이다. 한 1년간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아무래도 그 1년동안에 부모님의 반대와 친구들의 성화에 못이겨 내 결심이 꺾일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전부터 이대부속병원에서 특별히 분만개조 실습을 주로 했었으며,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아무 시설이 없는 이 촌에서도 거뜬히 일해가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정선군보건소에 갔을 때만 해도 보건소원들까지 “아니 뭐 하러 여길 왔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가지 못해 애쓰는 판인데 공연히 어떤 호기심이나 소녀적인 감상에 젖어 찾아왔다면 얼른 돌아가슈” 하며 달갑지 않게 대해 주었다.

보건소라는 곳은 그저 먹고 노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고 모자보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자기의 생활방편으로 알고 시간을 채워 월급을 받는게 고작이었다.

나는 이런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면으로 들어가 직접 부락민들과 가까이 하며 일하고 싶어져서 다시 이 북면으로 찾아온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아들보다도 더 기대를 걸셨다면 한사코 반대하셨고 친구들도 달렸지만 끝내 내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외국가는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반대를 외면하기란 힘든 일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머리속에 뿌리박힌 그 고집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택했다.

아마 그 고집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국민 학교 3학년때부터 싹텄나

보다. 언젠가 내가 노트를 뒤지다보니 국민학교 3학년 때에 쓴 글짓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나는 이다음에 여의사가 되어 외국에 갔다 와서는 불쌍한 농촌사람들을 도와 일하겠다”그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의사가 아닌 간호원이 되었다는 것 뿐이지 국민학교 때부터의 꿈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내가 집에 다니러 가던 “아니 목소리까지 남자같이 변하고 아주 선 미움이 다 되었구나”하시며 부모님들은 안타까워 하신다. 더구나 그곳에서 자취생활로 제때에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그 먼길을 걸어야 다니며 고생하는 걸 일일이 아신다면 더욱 가슴아파 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도 해야 할텐데 그렇게 산골짜기토만 기어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화시다.

하지만 내가 이 부락을 찾아들어 제일 먼저 분만개조를 했을 때의 그 보람과 아기를 받아 놓고 마음이 설레어 하루종일 그 짐을 드나들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산실에서 아기를 받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보람이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이따서 끈뭇지게 달리는 부모님의 반박나 친구들의 성화를 컷전으로 훌러 보내고 오할도 힘든 길을 다리 아픈 줄 드르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보다.

적어도 이 북면에 모자보건센터를 세워서 이곳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드나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실 모자보건실을 갖추어 놓기까지는 나는 이 곳을 뜨지 않을 생각이다.

요즘 국외취업으로 달리는 친구들, 그리다 간호원들을 생각해 본다.

나도 이곳에 리오기까지는 가장 탄넬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외국으로의 길은 벅찬 감정을 일으켰지만 이제 때때로 그들의 소식을 들노라면 전갈지 않아 그렇게 부러운 생각도 없어졌다.

자신이 느끼고 본 농촌의 생활은 나를 성숙하게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길을 터득케 했는지도 보른다고 생각하며 나같은 등료가 한사람이라도 좋으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버려진 우리의 그향을 보살펴야 될 의무를 호소하고픈 심정이다.

내 조그만 회생이 열매맺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들의 회생을 부르고 있는 버려진 땅을 찾아줄 기쁨의 날을 또한 기원해 본다.